□■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4. 5. 12

사무엘상 강해 31

두 번째 순종

Second Obedience

사무엘상 26장 1-12절

---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6.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

1.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그 이후 사울의 핍박은 사라졌나요? (1, 2)

2. 오늘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에(10, 11)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번의 질문을 생각해보면서, 두 번째 순종은 첫 번째 순종에 비해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순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2)

4.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러 왔지만, 오히려 두 번 모두 사울이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적용해봅시다.